

38. 시편 92편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1-4)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12-15)